(제43권 1호)

성탄절 후 두 번째 / 신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CHRISTMAS

주후 2021년 1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새 20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번 시편(Psalm) 1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야고보서 (James) 3:13-18**		장경국 집사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Be Something, Do Something, Leave Something"**		Will Purushotham
한어 설교 Korean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8) – 화평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Peace)**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조차 종교적 형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회개 없는 믿음과 열매 없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며, 이제는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2:6-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글개역 **약 3:17-18**)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aise a harvest of righteousness." (NIV **James 3:17-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3 (주일)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본문	창3 마3 스3 행3	창4 마4 스4 행4	창5 마5 스5 행5	창6 마6 스6 행6	창7 마7 스7 행7	창8 마8 스8 행8	창9,10 마9 스9 행9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6 오후7:30)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요14:6-14)
토요 새벽기도회 (1/9 오전6:30)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시21:1-13)

지난 주일(12/27)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7) – 진리 안에서**" (**요삼 1:2-8**)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은 누구나 다 바라는 소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건네는 새해 인사에도 이러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지) 2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함이 기쁘고, "진리 안에서" 행함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1)첫째,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서, 유대인 랍비들은 히브리어로 '진리(אמת)'는 (오직) 하나님(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ת)으로 끝을 맺어야만, 그것이 처음부터, 그 중간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함 없는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2)둘째,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로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은혜와 진리'는 결코 따로 떨어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이며, (이는) 변함 없는 사랑인 '헤세드'와 변함 없는 진리인 '에메트'를 함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 변함 없는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신실함과 사랑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